

▶ 전주야행, 16일 마지막 여정길

색선별로 나눈 '수작' 선보인다

'인류', 무형유산 등재 종목등
제조명 등 통한 철학 공유

'한국', 전통문화유산 가치 전수

'미래', 유·무형유산 전승
후대에 유산 전하는 과정 일깨워

올해 마지막 전주문화제야행이 16일 경기전과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지난 5월 개막야행을 시작으로 6·7·8월에 진행했던 3회의 분야별 야행 그리고 이날 폐막야행을 마지막으로 전주문화제야행은 여정의 끝을 맺는다.

야행은 '인류수작', '한국수작', '미래수작', '모두의 수작' 등 색선별로 나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행사는 오후 8시부터 경기전 광장에서 진행된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종목들에 대한 제조명과 공연 등을 통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인류수작'에는 우리소리 바라지와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그리고 임실필봉농악이 출연해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미래에 전수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한국수작'은 오후 7시 30분 오목대에서 만날 수 있다. 모보경의 판소리, 조승희·김기범·최광일의 산조연주, 전주호의 장단연주는 '중견 국악 연주자 초청'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유·무형유산을 전승하고 후대에 유산을 전



올해 마지막 전주문화제야행이 오는 16일 경기전과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미래수작'은 오후 7시 소리문화관에서 열린다.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태조어진, 흠어진 빛의 조각을 찾아라'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찾는 퍼즐 게임. 12 조각의 흠어진 태조어진을 가장 먼저 찾는 팀이 우승하는 참여형 미션수행 게임으로 '모두의 수작'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기능분야 무형문화재의 이야기를 듣고 시연을 관람할 수 있는 '별에게 길을 묻다'는 오후 6시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진행된다.

한옥마을 골목골목을 둘러보며 제228호 전상열차분야지도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천문학 강의와 국악공연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향유 프로그램 '별빛기행'과 따뜻한 차 한 모금에 주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달빛차회'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을 걷다 지친 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영상으로 만나는 무형문화유산'은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경기전 쉼터와 태조로 쉼터에서 진행되며,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천년의 달을 상징하는 대형 미러볼 조명을 통해 쏟아지는 다양한 색깔의 빛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태조어진 봉안행렬 반차도가 새겨진 한지등과 한지로 만든 소원 등은 한옥마을 거리 곳곳을 밝힐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인간의 이성적 행위, 사물·자연의 형태로

우진문화재단, 박지은 '그녀가' 전

옷칠과 나전을 소재로 작업해 온 박지은 작가.

그가 우진문화재단의 제66회 청년작가에 초대되어 '그녀가'전을 선보이고 있다.

박 작가는 그간 우연적인 이미지에서 내용을 의미화 시키는 작업을 펼쳐왔다. 이번 전시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행위를 사물이나 자연의 갖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는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행위를 우리 일상의 모습에서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삼베를 화면에 붙이고 그 위에 옷칠을 수차례 덧칠하는 지난한 작업과정을 거쳐 조형을 완성한다.

작가는 "나의 옷칠 작업은 옷칠과 건조의 반복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으나, 나무 화면에 또는 그 위에 삼베나 모시를 붙이고 나전까지 첨부함으로써 동양화의 적묵법에서 나타나는 중후함이 배어 나온다"고 말한다.

작업의 전 과정이 번거롭고 기성 물감이 없이 안료를 섞어 하나하나의 색을 매번 만들어 써야하지만, 작가는 그림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표현해 옷칠



의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다.

박지은 작가는 "이번 전시는 나에게 새로운 시도다. 주제나 조형적으로도 그렇지만 새로이 가정을 이루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생활공간과 환경이 달라졌다. 그렇게 보고, 겪고, 느낀 것이 작품에 담겨 있다"면서 "평안할 수는 없지만,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듯하다"고 전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장애인 시각예술작품 전시회

19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서

서물과 투박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그림과 사진에 담아낸 군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작품 전시회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군산예술의전당 2, 3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성인미술, 시니어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그림 작품과 입체작품, 구세군군산복합원의 거주인들의 사진과 그림들, 나포길벗공동체 거주인들의 만화, 서예글씨작품 등 80여점이 전시실을 가득 채워 전시회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들의 재능과 역량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5일에는 예술의전당 제2전시실에서 전시 오픈식을 개최하여 중창단의 축하공연과 작가 소개 등의 시간이 개최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라스트포원, 전주시민 위해 특별히 쓴다

16일 비보잉 공연 '라쇼' 선포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이 홍보대사 위촉 2주년을 맞이해 전주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진행한다.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은 오는 9월 16일 오후 7시, 전주 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서 전주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보잉 공연 '라쇼'를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과 '2017 World of Dance Final' 청소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수아리질라, 비트박스 듀오 짝꿍이 참여한다.

이번에 공연되는 비보잉공연 '라쇼'는 비트박스 짝꿍의 '코리아 비트박스'를 시작으로, 수아리질라의 '서유기' 퍼포먼스, 라스트포원의 비보잉 갈라쇼를 끝으로 공연이 마무리된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전주시 홍보대사 라스트포원은 길거리공연에 최적화된 비보이 퍼포먼스를 전주의 또 다른 브랜드 공연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한편, 라스트포원은 '2005 Battle of the Year International'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국내·외 다양한 대회를 휩쓴 대한민국 대표 비보이그룹이다. /김민근 기자



화법은 활달하게 상상은 다채롭게

하기정 시인, 데뷔 7년만에
'밤의 귀 낮의 입술' 출간

하기정 시인이 데뷔 7년 만에 첫 시집 '밤의 귀 낮의 입술(모약)'을 펴냈다.

활달한 화법과 다채로운 상상력을 지닌 62편의 시에는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그 그늘에 가려진 불안한 내면들이 담겨 있다. 그 세계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끔 우연한 기회에 엿볼 수 있다. 그 할나의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꿈과 욕망의 실체를 목격할 수 있다.

'낮의 입술이 밤의 귀를 다 열어서는 / 입을 때까지 /
우린 왜 자꾸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에만/ 깊은 우물을 파는지 /
물속에 두고 온 것들이/ 가뭄에 모조리 뼈대를 드러낼 때까지 /
입술을 꼼뻍뻍 달짝이는 봉어처럼 /
'-밤의 귀 낮의 입술- 중에서

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이 시에서 시인은 낮익은 듯 낯선 순간을 개성적

인 언어로 포착하여 묘한 이미지의 뒤를림을 보여준다.

'낮의 입술이 밤의 귀를 다 열어서는 / 입을 때까지'에 이르러 누군가의 목소리가 은밀하게 귓바퀴에 다가 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것은 입을 벌려 말할 때 소리는 없지만, 그 깊고 어두운 입술 사이로 무성의 파장이 밀려 오는 걸 목격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그 순간 우리의 귀는 '업'의 울음으로 울어야 할지도 모른다.

문태준 시인은 서평에서 "하기정 시인의 시집에는 신기하고 매력적인 질문들이 가득하다. 뻘뻘한 세계, 상투적인 세계를 뒤집어 '낯설고 위험한 세계'가 위로 솟아오르게 한다"고 했다.

하기정 시인은 1970년 전북 입실에서 태어나 우석대 대학원 문창과를 졸업했다. 2010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구름의 화법'이 당선됐다. 2007년 5·18문학상과 제7회 작가의 눈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엔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